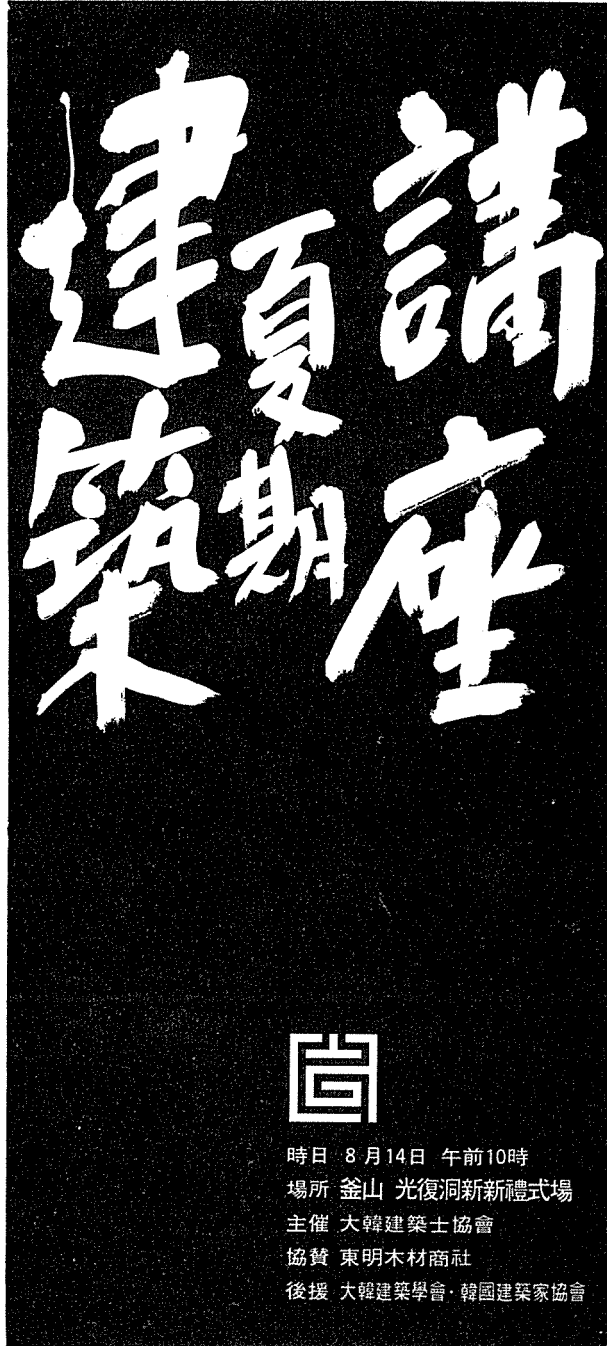


第1回 巡廻建築講座

오늘의 건축은 이미 개인적인 창조의 범위를 넘어서었다. 한나라의 문화는 지방문화의 배경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수준의 향상이다. 본 협회는 지방 건축의 발전을 위한 시도의 하나로 순회강연회를 계획하고 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8월 14일 부산에서 하기건축강좌를 가졌다. 부산지부회원과 그 보조원들이 약 200여명 모인 강연회가 끝난후 이어서 지부회원들과 서울서 내려간 연사와 김동규이사 등 서울 회원간에 건축전반에 관한 장시간의 토론이 있었다.

이하의 강연요지를 간추린 것이다.



講 座

夏 期

建 築

固

時日 8月14日 午前10時
場所 釜山 光復洞新新禮式場
主催 大韓建築士協會
協贊 東明木材商社
後援 大韓建築學會·韓國建築家協會

建築文化와 美觀

鄭寅國(홍익대학 교수)

建築의 美란 그 建築이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 우리의 감정을 억양시키는 힘, 질서를 부여하는 것으로 建築自体가 질서표현으로 人間에 질서 의식을 주는 것이다. 즉 建築의 美란 두드러지게 꼬집어 말할 수 없는 건축의 한 속성인데 이 건축의 美가 우리에게 대두된 것은 19C 말~20C 초엽으로 그前에는 사람이 神에 바치는 정성의 표현, 數의 원리에 의하여 창안된 것이지 특별히 아름답게 만들려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속성이다. 近代建築家들의 建築史에의 공헌은 크나 동시에 이들은 뒤에 올 1970년에의 혼란은 생각하지 못했다.

오로·와그너의 근대건축의 四 重要 요소는

- ㄱ. 목적의 정확한 파악
- ㄴ. 재료사용의 올바른 선택
- ㄷ. 간편하고도 합리적인 구조의 선택
- ㄹ. 간편하고도 합리적인 구조의 美

인데 이러한 이론에서 International style 이라는 이름의 建築양식이 56년까지 全世界를 지배했다. 이 원칙은 좀더 사회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재료의 공통성으로 세계 공통의 건축으로 되었고, 정치적 선진국의 후진국 장악으로 자기들 건축문화의 원리 원칙을 밀고 나감으로서 세계건축으로 나아 갔으나 현재는 여러 후진국들이 독립국으로 나아감으로서 이 현대건축이 무너지는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므로 建築에서 絶對的인 美란 없는 것이며 美라고 분절하는 방법은 진부한 것이다.

建築構造에 對해서

金熙春(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한 建築物이 有價值하다고 할 수 있을 때 그 建築은 自身의 文法-秩序를 가진다. 하나의 집, 建築이 가지는 文法-秩序 그것이 構造다.

우리는 建築材料를 가지고 機能을 表現해야한다. 어떻게 部材들이 모여 空間과 形態를 이루면서 機能을 成立시키는가 하는 것이 建築構造의 참다운 意味다. 대부분 우리는 構造를 너무 安易하게 생각하고 있다. 部材를 모아 構造物이 되게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다. 建築物은 構造物과 다르

다. 建築物은 하나의 生活, 機能을 暗示하며 그것은 空間과 形態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 그 空間과 形態의 骨格을 이루는 것이 構造다. 그러므로 建築構造란 단순한 工學이 아니라 生活의 意味와 연결된 人間工學의 立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建築構造는 建築의 文法이지 建築自体가 아니다. 그 文法の 理論이 構造力學이며 그 文法の 原理가 建築計劃이다.

그러므로 建築構造는 計劃-構造-力學의 關係에서 理解되어야하며 그러한 次元에서 研究되어야 한다.

建築計劃에 對해서

姜明求(本協會會長)

建築計劃은 建築의 基本을 決定하는 것이다. 그러나 建築의 基本이란 全體의인 輪廓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計劃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 것은 한 建築物의 모든 部分이다.

實施設計와 施工을 통해서 計劃은 實地의 집이 된다. 實施設計와 施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의 基本이 되는 計劃이 소홀히 되어서는 合理的인 設計와 施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물론 좋은 建築이 될 수도 없다. 우리는 흔히 計劃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計劃이 設計와 施工의 基本이 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면서 동시에 細部的이어야 한다. 하나의 집, 하나의 建物에서 모든 部分, 部分들간의 關係, 全體와 部分들과의 關係 등 어느 하나도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결국 建築은 部分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計劃은 部分의 研究에서 시작되어 全體로, 全體에서 다시 部分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이때 部分에서 全體로, 全體에서 部分으로의 計劃을 一貫시키는 意志가 如一해야함은 물론이며 그 部分들은 모두 충분한 研究와 검토를 거쳐야 한다. 도어의 손잡이에서 번기의 위치에 이르기까지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집의 모든 部分은 다함께 중요하며 우리가 주의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部分들에 대한 研究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部分간의 秩序에 대한 研究가 시작되어야 하며 그럴 때 우리는 設計와 施工의 基本이 될 뿐 아니라 實地의 必要에도 타당한 建築을 計劃하는 것이 될 것이다.